

코로나19(COVID-19)가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과 2020년 하반기 세계경제전망

정승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2020년 상반기, 세계 경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국가들이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캠페인, 자가 격리(self-isolation) 및 이동제한령(lockdown) 조치 등을 시행함에 따라 노동자들과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지고 그로 인해 글로벌 가치 사슬(global value chain)이 무너지고 전 세계적으로 무역량이 감소하였다. 그 결과 2020년 1분기 세계 무역량은 전년 대비 및 이전 분기 대비 하락하였으며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2020년 2분기 무역량 역시 감소할 전망이다. 세계 국가들의 경제성장률 또한 2020년 1분기 전년 대비 및 이전 분기 대비 하락을 기록하였으며 2분기 역시 전망이 어둡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국들은 개발도상국의 외채 상환 기간을 유예 해주는 등 국제협력을 통해 위기를 함께 극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한편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놓고 국가간 갈등을 벌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중국책임론'을 내세우며 현재 여러 국가의 집단에서 중국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또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처럼 자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정치·경제적 불만을 외부로 분산시키기 위해 '반중(反中) 정서'를 활용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들은 다자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보다 경제적 자립(economic self-reliance), 단절, 디커플링(decoupling), 자국우선주의를 택하는 행보들을 보이고 있다. 결국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2020년 하반기 세계경기 침체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들이 다자간 협력을 추구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그 전망은 아직까지는 어두워 보인다.

목 차

- I. 들어가며
- II.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 현황
- III. 코로나19가 세계경제에 미친 여파
 - 1. 코로나19와 세계무역 및 산업
 - 2. 코로나19와 세계경제 성장률
 - 3. 코로나19와 신흥시장국/개발도상국
 - 4. 코로나19에 대한 각국 및 국제사회의 대응
- IV.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에 남긴 경제적 여파
 - 1. 국가간 갈등의 조짐
 - 2. 국제부채 위기 가능성
- V. 도전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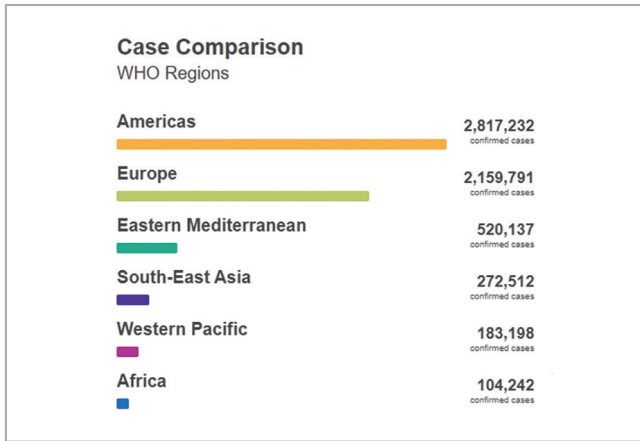
I. 들어가며

- ◆ 2019년 12월 31일 중국 우한에서 최초로 코로나19 (그 당시에는 원인 불명 폐렴) 환자가 발생한 이후 2020년 상반기 현재 아시아를 넘어 유럽, 북미, 중동, 아프리카 등 전 세계 곳곳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음
- ◆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2020년 1월 30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를 선언함. 이후 프랑스, 캐나다, 핀란드, 이란, 이탈리아, 미국, 브라질, 터키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함. 이에 따라 마침내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3월 11일 코로나19를 전 세계적인 규모의 전염병인 판데믹(pandemic)으로 선언함
- ◆ 현재 전 세계 국가들이 코로나19 사태 해결에 집중하느라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없는 상황임. 특히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가마다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캠페인, 자가 격리(self-isolation) 및 이동제한령(lockdown) 조치 등을 시행 중이기 때문에 전 산업(제조업 및 서비스 부문)에 걸쳐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기업들이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할 수 없게 된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국제무역에 의존하는 국가들의 경제상황 또한 계속해서 악화됨
- ◆ 이처럼 전 세계적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일시적 혹은 장기간 동안 일자리를 잃게 되었음.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각종 정치·사회적 갈등의 조짐이 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 또한, 계속된 경기 침체는 국가간 정치·경제적 분쟁으로 비화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임
- ◆ 이 글에서는 우선 현재까지의 코로나19 확산 현황, 이번 사태가 지금까지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후 이 사태로 인해 앞으로의 국제정세가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한 전망을 논의해볼 예정임. 결론부터 언급하자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0년 하반기 세계경제는 경기침체 상황이 지속될 것이며 이로 인해 국제협력 및 다자주의 움직임 또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국제사회는 어떻게 하면 전 세계 국가들이 자국우선주의를 떨치고 코로나19 사태 해결과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 협력을 추구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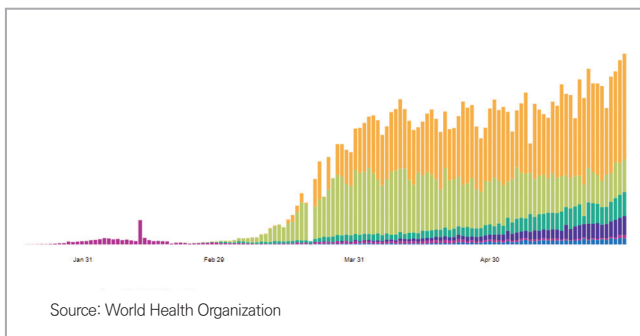
II.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 현황

- ◆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2020년 6월 1일 현재(CEST: Central European Summer Time)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감염 건수는 약 605만여건, 사망 건수는 37.1만여건에 달하고 있음 ¹⁾
- ◆ 지역별로는 미대륙(Americas)이 약 281만명으로 가장 많은 누적확진자를 기록하고 있음. 이는 미국 확진자 수가 전 세계 최고수준인 약 173만명, 그리고 브라질이 약 49.8만명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임
- ◆ 그 다음으로는 유럽(약 216만명), 중동(약 52만명), 남동아시아(약 27만명), 서태평양(약 18만명), 그리고 아프리카(약 10만명)가 뒤를 따르고 있음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2020년 6월 1일 현재
(CEST: Central European
Summer Time)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감염 건수는
약 605만여건, 사망 건수는
37.1만여건에 달하고 있음*



출처: 세계보건기구 (https://covid19.who.int/?gclid=CjwKCAjw5Ij2BRBdEiwA0Frc9TN4j6rr0NrFve6YZLCAy6BetXsZYbDCDHboH__cff3OVn1uKyIWAxoc9fAQAvD_BwE)



출처: 세계보건기구 (https://covid19.who.int/?gclid=CjwKCAjw5Ij2BRBdEiwA0Frc9TN4j6rr0NrFve6YZLCAy6BetXsZYbDCDHboH__cff3OVn1uKyIWAxoc9fAQAvD_BwE)

- ◆ 시기별로는 (한국을 포함한) 서태평양 지역이 가장 먼저인 2020년 1-2월에 코로나19 확산을 경험하였음. 이후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코로나19 확산세는 잠잠해졌으나 2020년 3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함. 특히 유럽에서는 2020년 3월 15일부터 1일 확진자 수 1만 명을 넘겼으며,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매일 1일 확진자 수가 3만에서 4만여명으로 유지되다 현재는 2만여명 전후 수준으로 1일 확진자 수가 감소함. 반면에 미대륙은 2020년 3월말부터 1일 확진자 수 2만여명을 기록하기 시작하였으며 6월1일 현재 1일 확진자수는 7만3천여명을 기록하며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음. 이외에도 중동, 남동아시아(인도 포함),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3, 4, 5월에 걸쳐 1일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세계경제에도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상품과 서비스가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드는 세계화의 혜택을 받아 온 국가들은 국제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추구해 왔음. 하지만 세계무역량 증가로 경제적 이득을 보게 된 국가들은 한편으로는 국가간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국가의 경제적 상황이 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올라가게 됨. 이는 달리 말하면 (경제적 자유주의 입장으로 보면) 모든 국가들의 경제상황이 좋을 시에는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지만 특정 국가들의 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 그 국가들과 경제적으로 얽혀있는 다른 국가들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게 됨을 의미함. 예를들어, 2008-2009 세계금융위기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sub-prime mortgage crisis)가 전 세계로 급속하게 확산된 사례임. 이처럼 특정 국가(들)에서 발생한 위기도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현대자본주의 체제에서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는 세계경제에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특정 국가(들)에서 발생한 위기도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현대자본주의 체제에서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는 세계경제에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Ⅲ. 코로나19가 세계경제에 미친 여파

1. 코로나19와 세계무역 및 산업

- ◆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는 2020년에 세계 상품 무역량이 전년도 2019년 대비 13-32% 하락할 것으로 예상함. 또한, 세계무역기구의 경제학자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제무역 침체가 2008-2009 세계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함. 이 외에도 세계무역기구는 2020년에 대부분의 지역(대륙)에서 무역량이 두 자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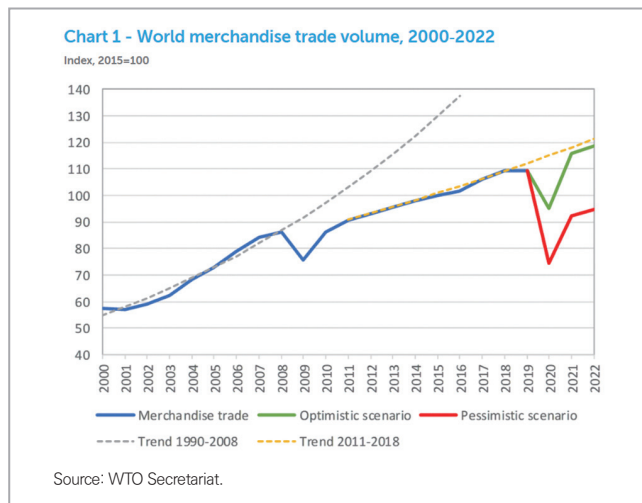
하락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함. 특히 북미와 아시아 지역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함²⁾

-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의 2020년 5월 13일 발표자료에 의하면 2020년 1분기 세계무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3% 하락하였음.³⁾ 하지만 2020년 2분기 들어 세계 무역량은 더욱 급격하게 하락하여 세계무역액은 전분기 대비 27% 하락할 것으로 예상함
- ◆ 이처럼 전반적으로 전 세계 경기침체로 인해 국제기구들은 2020년 한 해 동안 2019년과 비교하여 상당한 수준의 국제 무역량 하락이 있을 것으로 예상함.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만 해도 세계 무역량 감소의 주된 원인은 국가들이 위기상황에서 보호무역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전 세계 경기침체로 인한 총수요 하락이 주된 요인인 것으로 보임.⁴⁾ 하지만 경기침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국가들 사이에서 자국우선주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함
- ◆ 세계무역기구는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면 2020년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창궐 이전 수준으로 세계 상품 무역량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함. 하지만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특히 경제대국들이 모여 있는 북미와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긍정적인 시나리오 대로 빠른 속도로 세계 상품 무역량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은 극히 적어 보임. 한편, 세계무역기구의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세계 상품 무역량이 2022년에 이르러도 20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이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 이로 인한 기업과 가계 소비 부진이 이어질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임
- ◆ 또한, 오늘날 상호의존적으로 엮여 있는 글로벌 가치 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이 코로나19 창궐의 여파로 무너지면서 전 세계무역 침체로 이어짐. 20세기 후반 들어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힘입어 전 세계 각국은 그동안 자신의 비교·절대우위를 이용하여 글로벌 가치 사슬에 참여, 상품 생산과정의 효율성 증대에 공헌하였음. 그리고 이는 국제 상품 무역량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져 왔음. 하지만 글로벌 가치 사슬은 그 연결고리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사슬의 한 부분이라도 그 생산공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모든 생산공정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게 된다는 약점이 있음
- ◆ 현 코로나19 사태가 바로 글로벌 가치 사슬의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고 있음. 글로벌 가치 사슬 내에서 국가A는 각종 전자제품 혹은 차량과 같

*전반적으로 전 세계
경기침체로 인해
국제기구들은 2020년
한 해 동안 2019년과
비교하여 상당한 수준의
국제 무역량 하락이
있을 것으로 예상함*

*오늘날 상호의존적으로
엮여 있는 글로벌 가치
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이 코로나19 창궐의
여파로 무너지면서 전 세계
무역 침체로 이어짐*

은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에 필요한 첨단 부품을 생산 수출함. 국가B는 국가A의 부품을 수입 후 조립, 새로운 중간재 혹은 최종 완제품을 생산하여 국가C에 수출하는 구조가 형성됨. 중국의 경우 주변 아시아 국가로부터 원자재, 부품, 혹은 중간재를 수입 후 이를 최종 완제품으로 조립, 미국과 EU 시장으로 수출하는 가공무역(processing trade)을 통해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음. 하지만 코로나19 창궐 이후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조치, 이동제한령 등으로 모든 경제주체들이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해 글로벌 가치 사슬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국제 무역량도 급감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음



출처: 세계무역기구(https://www.wto.org/english/news_e/pres20_e/pr855_e.htm)

상품 무역 외에도 숙박업, 관광업, 항공업, 외식업 등 서비스 산업부문 또한 코로나19 창궐, 이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이동제한령 등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음

- ◆ 상품 무역 외에도 숙박업, 관광업, 항공업, 외식업 등 서비스 산업부문 또한 코로나19 창궐, 이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이동제한령 등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음. 전 세계 국제 관광객들의 수는 2020년 1분기 전년대비 22% 하락하였으며 2020년 전체 국제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58-78%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⁵⁾ 또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에 의하면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경우 2020년 항공기 승객이 전년대비 40%이상 감소할 것, 그로 인해 1130억 달러의 수익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⁶⁾
- ◆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더욱 번창하는 산업도 있음.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이동제한령 등으로 외출을 삼가는 사람들이 많아져 넷플릭스(Netflix)와 디즈니플러스(Disney Plus) 등 오버더톱(OT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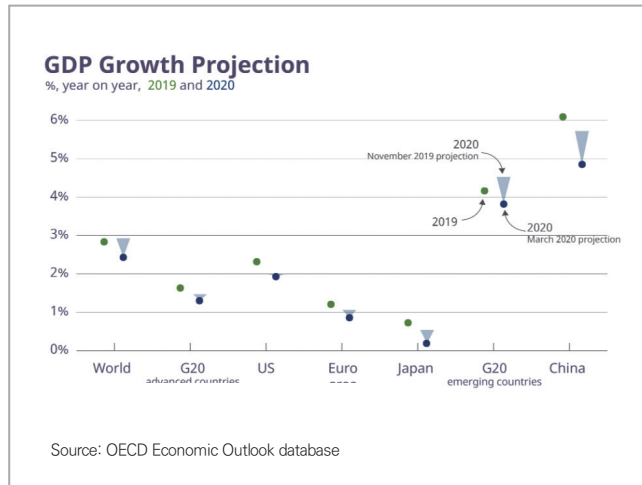
Over-the-top) 스트리밍 서비스 산업은 구독자 수 및 매출이 오히려 상승함. 더불어 한국의 쿠팡(Coupage)과 미국의 아마존(Amazon) 등 온라인 주문 및 배달 서비스를 주 업무로 하는 이커머스(e-commerce) 산업 또한 호황을 누리고 있음

2. 코로나19와 세계경제 성장률

- ◆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이 2020년 4월에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는 전 세계적인 “대봉쇄(The Great Lockdown)”의 여파로 2020년 세계경제성장률이 -3.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⁷⁾ 또한, 이코노미스트지(誌) 분석가들에 의하면 2020년 1분기 세계경제는 전년 동기 대비 -1.3%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예측됨⁸⁾
- ◆ 2020년 1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대비 4.8% 감소함에 따라 미국 경제는 2014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⁹⁾ 이러한 미국경제의 침체는 소비, 투자, 수출 등이 동시에 하락함으로 인해 발생하였음
- ◆ 중국경제는 2020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대비 -6.8%를 기록함. 이는 분기별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기 시작한 1992년 이래로 처음 있는 사건임.¹⁰⁾ 2020년 1-2월 중국의 수출액과 수입액은 전년대비 각각 17.2%와 4% 하락하였음.¹¹⁾ 2020년 3월에는 수출액과 수입액이 전년대비 각각 6.6%와 0.9% 하락하며 일부 반등을 이루어냈음. 나아가 2020년 4월에는 수출액과 수입액이 전년 대비 각각 3.5% 상승과 14.2% 하락하였음. 특히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중국의 수출액이 2020년 4월에 증가세를 보인 원인은 의외로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임. 또한, 다른 국가들보다 코로나19 사태를 일찍 겪고 경제회복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으로도 보임. 하지만 전 세계가 불황을 겪고 있는 와중에 수출증대를 통한 중국 경제의 회복 및 반등이 지속적으로 가능할지는 지켜봐야할 것임
- ◆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2020년 1분기 한국경제는 전년대비 1.3% 성장함. 다만, 2019년 4분기 대비로는 1.4% 감소함에 따라 한국 역시 경기침체를 피하지 못함.¹²⁾ 또한, 한국은행은 2020년 한국 GDP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0%로 낮춤.¹³⁾ 이외에도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2020년 4월 전년대비 수출액과 수입액이 각각 24.3%와 15.9% 하락한 것으로 드러남.¹⁴⁾ 이는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과 EU 등이 경기침체로 인해 교역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임

국제통화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보고서는
전 세계적인 “대봉쇄
(The Great Lockdown)”의
여파로 2020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3.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

- ◆ 유럽의 경우, 유로존과 전체 유럽연합(European Union) 각각 2020년 1분기 국내총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3.3%와 2.7% 하락함¹⁵⁾
- ◆ 일본은 2020년 1분기 국내총생산이 전분기 대비 0.9% 감소함. 2020년 3월 전년대비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11.7%와 5.0% 하락함.¹⁶⁾ 이 역시 그 주된 원인은 세계 1, 2위 경제대국이자 무역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불황 때문으로 보임



출처: OECD (<https://www.oecd.org/economic-outlook/>)

- ◆ 종합적으로, 2020년 3월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세계GDP는 2.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2019년 11월에 예측했던 2.9% 보다 하향조정된 것.¹⁷⁾ 또한, G20(3.2%→2.7%), 미국(2.0%→1.9%), 유로존(1.1%→0.8%), 일본(0.6%→0.2%), 한국(2.3%→2.0%), 중국(5.7%→4.9%), 영국(1.0%→0.8%), 인도(6.2%→5.1%), 러시아(1.6%→1.2%)의 2020년 예상 성장률을 전부 하향조정함
- ◆ 다만 이는 2020년 3월 예측치임. 중국과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를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시작한 시기가 2020년 1분기 후반(3월), 2020년 2분기 초반(4월)부터 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 발표할 각종 2020년 2분기 경제성장률 지표는 더욱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음

3. 코로나19와 신흥시장국/개발도상국

- ◆ 이코노미스트지(誌) 분석사들에 의하면 전 세계 66개 신흥시장국들의 국가 부채는 총 17조 달러로 전체 국가 부채양의 24%에 달함. (단, 한국, 대만, 러시아, 중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국가부채 상태가 양호함.) 또한, 이 가운데 (이전 연도들과 비교하여 역대로 많은) 18개의 신흥시장국이 2020년 들어 피치(Fitch) 국제신용등급 평가사에 의해 신용등급이 하락함¹⁸⁾
- ◆ 이 외에 구체적으로 신흥시장국들의 현상태는 다음과 같음:¹⁹⁾
 - 아르헨티나는 외채 5억 달러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여 채무불이행(default) 상황에 빠질 위기에 놓여있음
 - 에콰도르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8억 달러 외채 상환을 4개월간 유예하였음
 - 레바논은 12억 달러 외채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선언함
 -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국가부도 위기를 겪고 있던 베네수엘라의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됨
 - 더불어 잠비아도 곧 채무불이행을 선언할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 ◆ 이외에도 코로나19 창궐, 이로 인한 세계경기 침체, 그 결과로 인한 국제유가 하락으로 국가경제의 상당부분을 석유수출에 의존하는 중남미와 중동의 산유국들 또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음
- ◆ 그러나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통화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지역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될 것으로 예상함
 - 우선 세계은행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경제성장률이 2019년 2.4%에서 2020년 -5.1%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함.²⁰⁾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출, 관광객 유입, 해외직접투자 유입, 해외이주 노동자들의 송금액, 해외원조량 등이 감소함으로 인해 사하라 이남 지역 전체가 370-790억 달러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국제통화기금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GDP가 2020년엔 전년대비 -1.6% 수축할 것으로 예상함.²¹⁾ 특히 수출 다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석유수출 혹은 관광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일수록 코로나19로 인해 더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 이외에도 이동제한령에 따른 정상적인 경제활동 불가, 급격한 해외자본 유출 등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상황을 어렵게 만든 원인으로 지목됨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통화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지역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될 것으로 예상함*

- ◆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코로나19 창궐로 인해 2020년 전 세계 해외 직접투자량(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이 3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함.²²⁾ 이는 경제 전반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상당량의 자본을 해외 직접투자로 조달하는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 또한, 세계은행(World Bank)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0년엔 전년대비 국제송금액이 20% 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함.²³⁾ 이는 전 세계 경기침체가 이주 노동자들의 일자리 및 소득 상실로 이어졌고 따라서 이들이 본국의 가족들에게 송금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임. 이주 노동자들의 송금은 일부 저소득과 중소득 국가들에게 있어 귀중한 소득의 원천임. 따라서 본국으로 들어오는 국제송금액의 감소는 저소득과 중소득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2020년에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유럽과 중앙아시아, 중남미, 중동과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으로 향하는 송금액은 각각 전년대비 13%, 28%, 19.3%, 19.6%, 22%, 23.1%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²⁴⁾

4. 코로나19에 대한 각국 및 국제사회의 대응

-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국가들은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고 있음
- ◆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2조 달러 규모의 경제 부양책을 마련하는 등 GDP의 15%에 이르는 적자예산을 2020년에 편성함.²⁵⁾ 이를 바탕으로 연 소득수준에 따라 미국 성인 1명에게는 최대 1,200달러를, 어린이는 1명당 500달러를 추가로 지급함. 이외에도 경제난을 겪고 있는 실업자, 자영업자, 중소기업, (고용유지를 장려하기 위해) 대기업 등에게 특별 자금 및 대출을 제공함
- ◆ 중국은 GDP의 3.6% 규모의 2020년 적자예산을 편성함(2019년엔 GDP의 2.8% 규모).²⁶⁾ 또한, 자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 그리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 등을 발표함
- ◆ 유로존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5,000억 유로 규모의 경제회생기금을 설치하기로 2020년 4월 10일에 합의함.²⁷⁾ 이후 2020년 4월 23일 EU 회원국 정상들과 샤를 미셸(Charles Michel) EU 이사회 상임의장(President of the European Council) 또한 경제회생기금 설치에 합의함. 다만 2020년 5월 22일 현재 경제회생기금을 회원국들에게 대출로 제공할지 상환의무가 없

는 보조금으로 제공할지 여부를 두고 EU 내에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

- ◆ 한국은 2020년 3월 17일, 11조 7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국회가 통과 시킴. 이를 통해 경제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저소득층, 취약 계층 등을 지원함과 동시에 전국민 대상으로 가구별 최대 100만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함
- ◆ 일본은 2020년 4월, 117조엔 규모의 긴급경기부양책을 마련함.²⁸⁾ 그 긴급경기부양책에는 일본인 개인에게 각각 10만엔씩 제공하기 위한 12조 8천억엔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3조 8천억엔 등을 포함함
- ◆ 이외에도 러시아,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호주, 캐나다, 멕시코 등 경제대국들도 각각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여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음²⁹⁾
- ◆ 더불어, 세계은행 총재 데이비드 맬패스(David Malpass)와 국제통화기금 총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Kristalina Georgieva)는 2020년 3월 25일 공동성명을 통해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소속 저소득 국가들을 대상으로 채권국들이 채무상환 일시 유예 등의 관용을 베풀 것을 요청함.³⁰⁾ 이에 G-20 국가들은 5월 1일부로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2020년 4월 15일에 발표함.³¹⁾ 또한 이들은 민간채권자들에게도 저소득 국가들의 채무상환 유예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함

세계은행 총재 데이비드 맬패스(David Malpass)와 국제통화기금 총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Kristalina Georgieva)는 2020년 3월 25일 공동성명을 통해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소속 저소득 국가들을 대상으로 채권국들이 채무상환 일시 유예 등의 관용을 베풀 것을 요청함

IV.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에 남긴 경제적 여파

1. 국가간 갈등의 조짐

- ◆ 코로나19 확진자가 중국 우한에서 최초로 발생하였고 중국 정부가 이에 대한 초기대응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 되었다는 주장아래 ‘중국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이러한 주장에 따라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개인 및 집단들은 중국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 대표적으로 2020년 4월, 인도 변호사협회는 국제법률가위원회(ICJ: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와 공동으로 코로나19 확산에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개인 및 집단들은 중국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대한 책임을 중국에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유엔 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에 제기함. 2020년 4월 미국의 미주리(Missouri)주(州)와 미시시피(Mississippi)주 또한 중국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더불어, 미국 플로리다 사람들은 중국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주법원에 제기한 상태임. 이외에도 터키 앙카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2인도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음. 종합적으로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약 1만여명이 중국을 상대로 코로나19 사태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함

- ◆ 다만 국제법 상의 주권면제(sovvereign immunity) 원칙상 특정 주권국가가 다른 국가의 법정에 서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점, 소송을 제기한 개인 및 집단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에 대한 책임이 정말로 중국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따라 중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얻어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국제법 전문가들 사이에서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중국은 자국을 향한 모든 배상 소송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소송제기 국가 혹은 집단에 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음. 호주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는 이유로 중국이 호주산 보리와 쇠고기 수입금지 보복조치를 내렸음³²⁾
- ◆ 하지만 중국이 전 세계국가 및 집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되는 일은 없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반중(反中) 감정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대한 대응책을 중국은 마련해야 할 것임
- ◆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최근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악화되던 미국 내 대중(對中)여론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더욱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³³⁾ 이와 더불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4월 30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 위치한 연구실에서 발원하였다고 연일 중국을 공격하고 있음.³⁴⁾ 다만,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그동안 2017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경제가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재선을 노리던 트럼프 입장에서는 마침 미국 대선이 있는 해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 이로 인해 미국이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는 점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2020년 11월 미국 대선을 겨냥하여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의 불만을 중국으로 돌리려는 전략으로 보임
- ◆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근거 없는 음모론을 퍼트리고 있다”며 미국을 비판함.³⁵⁾ 이에 따라 추후 미중 관계의 회복 및 발전에 악재로 작용할 것

으로 보임. 결국 2018년부터 이어져온 미중 무역 분쟁은 앞으로 코로나 19 사태에 대한 책임문제와 결합하여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됨

*2018년부터 이어져온
미중 무역 분쟁은 앞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책임문제와 결합하여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됨*

2. 국제부채 위기 가능성

- ◆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들은 확장적 재정 및 통화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보다 구체적으로, 경기침체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자국경제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들로 각종 재난 지원금 제공을 통한 국민들의 소비심리 진작, 대량실업 사태 방지, 파산위기에 처한 기업 및 은행 구제를 위한 지원,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을 위한 보조금 지급 등 국가별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다만 이 모든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들은 국채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있음. 이는 곧 국가부채의 상승으로 이어지기도 함. 더군다나 전 세계적으로 중국과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있지 않은 현재, 확장적 재정 및 통화정책은 2020년 2분기와 3분기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임
- ◆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확장적 재정 및 통화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불황탈출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음. 하지만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도 국가부채 규모가 국가 별로 GDP의 100%를 육박 혹은 상회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일본의 국가부채 규모는 선진국들 가운데 최고수준인 GDP의 200%를 넘어 250%에 근접해 있는 상태임. 이 상황에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국가들이 국가부채 규모를 늘려가며 확장적 재정 및 통화정책을 사태 해결 때까지 지속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을지는 미지수임
- ◆ 그렇다고 국가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진정되기 전부터 혹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긴축정책을 성급하게 시행할 경우 경기회복세를 꺾어 더블딥(double-dip) 상황에 빠지게 될 수 있음. 또한, 긴축정책으로 인해 각종 수당 및 보조금을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하게 된 국민들과 증세의 대상이 된 국민들은 정부에 반감을 갖게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현 정부들은 다음 선거에서 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 하지만 반대로 계속해서 확장적 재정 및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는 국가부채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며 이는 국가에 따라 추후 채무불이행 문제 등으로 인한 국가부채위기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 이처럼 현재 세계경제와 각국 정부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으며 여러모로 세계경기침체는 2020년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현재 세계경제와 각국 정부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으며
여러모로 세계경기침체는
2020년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V. 도전과 과제

- ◆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코로나19 사태의 책임 공방을 두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는 나날이 악화되고 있음. 특히 트럼프는 전 세계적 코로나19 사태의 책임이 중국에 있다고 지속적으로 중국책임론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는 최소한 2020년 11월 미국 대선 시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무역을 포함한 미중 갈등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한국경제는 2020년 하반기에도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음. 따라서 한국은 중국이 전 세계 여러 국가와 갈등을 겪고 이로 인해 한국경제도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에 지금부터 대비해야 함

- ◆ 한국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그로 인해 입은 경제적 피해를 정부차원에서 중국에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은 아직 없음. 하지만 추후 미국과 중국, 혹은 세계 곳곳의 다른 국가들과 중국 사이에 갈등이 이어진다면 이는 한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그동안 최근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중국의 수출량 감소, 그리고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량도 급감함에 따라 특히 대중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수출은 큰 타격을 입어 왔음.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무역을 포함한 미중 갈등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한국경제는 2020년 하반기에도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음. 따라서 한국은 중국이 전 세계 여러 국가와 갈등을 겪고 이로 인해 한국경제도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에 지금부터 대비해야 함
- ◆ 한편,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경우 전 세계 교역량은 계속해서 하락할 것임.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도 세계 교역량의 회복 속도는 더딜 것으로 예상됨. 일단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현재 글로벌 가치 사슬 작동이 중단된 상태임. 이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수록 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가치 사슬을 재가동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 일단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들이 생산시설을 재가동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곧바로 마련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임. 더불어 현재 장기간 휴직 혹은 실업상태일 가능성이 높은 숙련 노동자들이 다시 생산라인으로 돌아가서 작업에 적응하는데 요구되는 시간이 길어질 것임. 숙련 노동자들일 경우 장기간 생산활동을 중단할 경우 숙련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글로벌 가치 사슬을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생산 능력 최대치(full capacity)로 재가동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이 경우 세계교역량이 코로나19 사태 이전 상태를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 글로벌 가치 사슬이 빠르게 재건되지 못할 수 있는 또다른 이유는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국가들이 보호무역주의, 고립주의 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실제로 미국, 일본, EU 등에서 이미 경제적 자립

(economic self-reliance)을 위해 자국 기업들에게 생산설비를 자국 내에 설립하도록 촉구하고 자국기업의 지분을 구매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등 국가들은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³⁶⁾ 더불어 경기침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타국(他國)정부의 지원을 받는 타국기업에 인수합병 되는 일이 없도록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호주, 인도 등 정부들은 해외투자자본에 대한 검열·규제를 강화하고 있음.³⁷⁾ 즉, 국가들은 교류·협력 증대를 통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모색하기 보다는 단절, 디커플링(decoupling), 자국우선주의를 택하는 행보들을 보이고 있음

*국가들은 교류·협력 증대를
통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모색하기 보다는 단절,
디커플링(decoupling),
자국우선주의를 택하는
행보들을 보이고 있음*

- ◆ 또한, 세계화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글로벌 가치 사슬이 언제쯤 다시 가동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세계화 움직임도 둔화될 것으로 보임. 적어도 당분간은(혹은 세계경제 회복 속도에 따라 장기적으로) 세계화의 퇴보가 예상되는 이유는 세계 무역량 급감과 더불어 관광 및 항공업도 장기간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지속될 경기불황, 그로 인한 전 세계사람들의 가치분소득 감소 때문, 혹은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사람들이 국내의 이동을 꺼려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임. 다만 자본과 상품, 인구가 직접 국경을 넘나드는 형태의 세계화는 주춤하더라도 온라인 비대면 교류를 가능하게 해주는 첨단ICT(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의 확산 또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 몇 십년에 걸쳐 이루어진 세계화가 한순간에 붕괴되지는 않을 것임
- ◆ 이에 따라 세계경제가 코로나19 사태 이전 상태로 장기간 동안 회복되지 못할 경우 “90% 경제” 상황에 익숙해져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³⁸⁾ “90% 경제”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비심리위축, 기업매출 하락, 이로 인한 경기침체 등이 지속됨에 따라 세계경제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90% 수준으로만 가동될 것이라는 의미임. 달리 말하면, 세계경제가 언제부터 코로나19 사태 이전 상태를 회복하고 그 이상의 수준으로 나아가는 기약이 없음을 의미함
- ◆ 한편으로는 노동시장에서도 구직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예상됨. 위에 언급된 경우처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사태 진전 이후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을 시도할 것임. 동시에 이제 막 학업 혹은 기술교육을 마친 인력은 처음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려 시도할 것임.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90% 경제” 상황이 뉴노멀(new normal)로 자리잡게 될 경우, 노동시장에 구직자는 많지만 새로운 일자리 양은 충분하지 않은 실업대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음. 이 과

*세계경제가 코로나19 사태
이전 상태로 장기간 동안
회복되지 못할 경우
“90% 경제” 상황에
익숙해져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정에서 연이은 구직활동 실패로 노동시장 (재)진입을 포기하는 인력이 속출할 경우 이는 국가의 복지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제 다자주의 움직임 또한
상당수준 퇴보할 수 있음**

- ◆ 결국 각국 정부입장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경기부양을 위해, 혹은 경기침체 상황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간 적자재정을 편성, 이를 시행해야 되는 상황임
- ◆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제 다자주의 움직임 또한 상당수준 퇴보할 수 있음.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미국과 중국은 무역갈등을 겪고 있었으며 지금은 코로나19 확산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문제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갈등 중임. 더불어, 앞서 언급하였듯이 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중국책임론을 내세우며 중국과 갈등을 벌일 징후가 보이기 시작함
- ◆ 글로벌 가치 사슬 재건을 통해 세계 무역량을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다시 회복하려면 글로벌 가치 사슬에 참여하고 있던 모든 국가들 간의 협력이 필요함.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발생 책임 문제를 놓고 국가들 간의 갈등이 지속될 경우 글로벌 가치 사슬 재건은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음
- ◆ 특히 국가 내 코로나19 사태 발생과 그로 인한 사상자 수 증가의 책임을 외부로 돌리려는 정치적 전략을 택하는 국가지도자들이 다수 등장할 경우 코로나19 사태 종결과 이후 세계경제 재건을 위한 국제협력은 요원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음.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보호무역주의, 이민제한, 내국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을 시행함으로써 국가 간의 무역과 교류를 감소시키는 정책을 펼칠 수 있음
- ◆ 또한, 국가들은 국제협력의 장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를 불신하고 이들과 협력하기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예를 들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초기대응에 실패하였으며 중국의 꼭두각시(puppet)라고 비난함.³⁹⁾ 더불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처럼 세계보건기구가 계속해서 중국을 감싸는 모습을 보일 경우 더 이상의 자금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선포함.⁴⁰⁾ 이틈을 이용해 중국은 세계보건기구에 3천만 달러를 지원하며 세계보건기구 내에서 그 영향력을 넓히고 있음.⁴¹⁾ 이처럼 국제기구의 행보를 놓고 국가 간의 갈등이 벌어짐에 따라 국가들의 역량이 한데 모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는 코로나19 사태와 그 이후에 발생할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간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계속해서 악재로 작용하고 있음

- ◆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호베르투 아제베두(Roberto Azevêdo)는 “국가들이 힘을 합한다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세계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한 다자간 협력을 강조하였음.⁴²⁾ 하지만 아직까지 국가들 간에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을 모색하는 구체적인 움직임은 부재한 상황임. 트럼프 행정부 아래 미국은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세계의 리더 역할을 맡을 의증이 없어 보임. 중국 또한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음. 따라서 다자주의 원칙을 통한 코로나19 사태 해결 및 이후 세계경제 회복은 요원해 보이는 상황임
- ◆ 마지막으로, “10년 주기설”에 따르면 경제위기는 20세기 후반부터 근 10년마다 한번씩 발생해 왔음. 우선 1979년에는 제2차 석유파동으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졌었음. 1987년에는 미국과 유럽증시가 폭락하는 ‘블랙먼데이(Black Monday)’가 발생하였으며 이후에도 1997-98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와 2007-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세계 경제는 위기를 겪었음. 그리고 마침내 이번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 경제가 또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었음. 그동안에는 10여년 마다 경제위기를 겪으면서도 세계경제가 붕괴하지 않고 유지되어 왔음. 이번에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경제가 완전히 몰락하는 상황까지는 오지 않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이번 위기를 겪으면서 앞으로 세계경제가 이대로 유지된다면 몇 차례나 더 위기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을지 상황 진단을 객관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호베르투 아제베두
(Roberto Azevêdo)는
“국가들이 힘을 합한다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세계경제가) 빠르게 회복
될 것”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한 다자간 협력을
강조하였음*

주 석

- 1) WHO Coronavirus Disease (COVID-19) Dashboard. Last updated 27 May 2020. https://covid19.who.int/?gclid=CjwKCAjw5Ij2BRBdEiwA0Frc9TN4J6rr0NrFve6YZLCAy6BetXsZYbDCDHboH__cff3OVn1uKylWAxoC9fAQAvD_BwE.
- 2) WTO. "Trade set to plunge as COVID-19 pandemic upends global economy." 8 April 2020. https://www.wto.org/english/news_e/pres20_e/pr855_e.htm.
- 3) UNCTAD. "COVID-19 triggers marked decline in global trade, new data shows." 13 May 2020. <https://unctad.org/en/pages/newsdetails.aspx?OriginalVersionID=2369>.
- 4) The Economist. "Covid-19's blow to world trade is a heavy one." 14 May 2020. <https://www.economist.com/briefing/2020/05/14/covid-19s-blow-to-world-trade-is-a-heavy-one>.
- 5) UNWTO. "International Tourism and COVID-19." 20 May 2020. <https://www.unwto.org/international-tourism-and-covid-19>.
- 6) Makhtar Diop. "Shore up global transport to defeat the COVID-19 (coronavirus) pandemic." World Bank Blogs. 1 April 2020. <https://blogs.worldbank.org/transport/shore-global-transport-defeat-covid-19-coronavirus-pandemic>.
- 7)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0: The Great Lockdown." April 2020.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Issues/2020/04/14/weo-april-2020>.
- 8) The Economist. "The 90% economy that lockdowns will leave behind." 30 April 2020. <https://www.economist.com/briefing/2020/04/30/the-90-economy-that-lockdowns-will-leave-behind>.
- 9) Jeff Cox. "US GDP shrank 4.8% in the first quarter amid biggest contraction since the financial crisis." CNBC. 29 April 2020. <https://www.cnbc.com/2020/04/29/us-gdp-q1-2020-first-reading.html>.
- 10) BBC. "China's virus-hit economy shrinks for first time in decades." 17 April 2020. <https://www.bbc.com/news/business-52319936>.
- 11) Ibid.
- 12) 한국은행. "2020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2020/4/23. <http://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57775&menuNo=200690>.
- 13) 한국은행. "보도자료. 공보2020-5-23호." 2020/5/28. <https://www.bok.or.kr/portal/singl/crncyPolicyDrcMtg/listYear.do?mtgSe=A&menuNo=200755&pYear=2020#content>.
- 14)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4월 수출입 동향." 2020/5/1.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2898&bbs_cd_n=81¤tPage=61&search_key_n=title_v&cate_n=&dept_v=&search_val_v=.
- 15) Eurostat News Release Euro Indicators. "Preliminary flash estimate for the first quarter of 2020." 30 April 2020.
- 16) Tetsushi Kajimoto. "Japan exports slump as coronavirus hits U.S., Chinese demand." Reuters. 20 April 2020. <https://www.reuters.com/article/us-japan-economy-trade/japan-exports-slump-as-coronavirus-hits-u-s-chinese-demand-idUSKBN2210Y9>.
- 17) OECD Interim Economic Assessment. "Coronavirus: The world economy at risk." OECD. 2 March 2020.

- 18) The Economist. "Which emerging markets are in most financial peril?" 2 May 2020. <https://www.economist.com/briefing/2020/05/02/which-emerging-markets-are-in-most-financial-peril>.
- 19) Ibid.
- 20) The World Bank. "COVID-19 (Coronavirus) Drives Sub-Saharan Africa Toward First Recession in 25 Years." 9 April 2020. <https://www.worldbank.org/en/news/press-release/2020/04/09/covid-19-coronavirus-drives-sub-saharan-africa-toward-first-recession-in-25-years>.
- 21) IMF. "Six Charts Show How COVID-19 Is an Unprecedented Threat to Development in Sub-Saharan Africa." 15 April 2020.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0/04/13/na0413202-six-charts-show-how-covid-19-is-an-unprecedented-threat-to>.
- 22) OECD. "Foreign direct investment flows in the time of COVID-19." 4 May 2020. <http://www.oecd.org/coronavirus/policy-responses/foreign-direct-investment-flows-in-the-time-of-covid-19-a2fa20c4/>.
- 23) World Bank. "World Bank Predicts Sharpest Decline of Remittances in Recent History." 22 April 2020. <https://www.worldbank.org/en/news/press-release/2020/04/22/world-bank-predicts-sharpest-decline-of-remittances-in-recent-history>.
- 24) Ibid.
- 25) The Economist. "After the disease, the debt." 23 April 2020. <https://www.economist.com/leaders/2020/04/23/after-the-disease-the-debt>.
- 26) 노정동. "‘코로나 뉴딜’ 중국, 820조 펀다…경기부양 본격 가동." 2020/5/22.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052262137>.
- 27) Euronews. "Coronavirus: EU finance ministers agree on €500 billion emergency fund." 10 April 2020. <https://www.euronews.com/2020/04/09/coronavirus-eurogroup-finance-ministers-agree-on-500-billion-emergency-fund>.
- 28) Nagata Kazuaki. "In Japan's record stimulus, which cleared the Diet, what will be on offer?" 30 April 2020. <https://www.japantimes.co.jp/news/2020/04/30/business/economy-business/record-coronavirus-stimulus-questions-answers/#.Xsd2hGzaUk>.
- 29) IMF. "Policy Responses to COVID-19." Last updated 22 May 2020. <https://www.imf.org/en/Topics/imf-and-covid19/Policy-Responses-to-COVID-19#B>.
- 30) IMF. "Joint Statement World Bank Group and IMF Call to Action on Debt of IDA Countries." 25 March 2020.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0/03/25/pr20103-joint-statement-world-bank-group-and-imf-call-to-action-on-debt-of-ida-countries>.
- 31) G-20. "Communiqué: G20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Meeting." 15 April 2020.
- 32) The Economist. "China punishes Australia for promoting an inquiry into covid-19." 21 May 2020. <https://www.economist.com/asia/2020/05/21/china-punishes-australia-for-promoting-an-inquiry-into-covid-19>.
- 33) Kat Devlin, Laura Silver, and Christine Huang. "U.S. Views of China Increasingly Negative Amid Coronavirus Outbreak." Pew Research Center. 21

- April 2020. <https://www.pewresearch.org/global/2020/04/21/u-s-views-of-china-increasingly-negative-amid-coronavirus-outbreak/#unfavorable-views-of-china-continue-to-climb>.
- 34) Dan Mangan and Berkeley Lovelace Jr. "Trump suspects coronavirus outbreak came from China lab, doesn't cite evidence." CNBC. 30 April 2020. <https://www.cnbc.com/2020/04/30/coronavirus-trump-suspects-covid-19-came-from-china-lab.html>.
- 35) BBC. "Coronavirus: China accuses US of spreading 'conspiracies'" 24 May 2020. <https://www.bbc.com/news/amp/world-asia-china-52790634>.
- 36) The Economist. "Has covid-19 killed globalization?" 14 May 2020. https://www.economist.com/leaders/2020/05/14/has-covid-19-killed-globalisation?fsrc=newsletter&utm_campaign=the-economist-today&utm_medium=newsletter&utm_source=salesforce-marketing-cloud&utm_term=2020-05-15&utm_content=article-link-1.
- 37) The Economist. "Covid-19's blow to world trade is a heavy one." 14 May 2020. <https://www.economist.com/briefing/2020/05/14/covid-19s-blow-to-world-trade-is-a-heavy-one>.
- 38) The Economist. "The 90% economy that lockdowns will leave behind." 30 April 2020. <https://www.economist.com/briefing/2020/04/30/the-90-economy-that-lockdowns-will-leave-behind>.
- 39) BBC. "Coronavirus: Trump accuses WHO of being a 'puppet of China,'" 19 May 2020. <https://www.bbc.com/news/health-52679329>.
- 40) BBC. "Coronavirus: US to halt funding to WHO, says Trump." 15 April 2020. <https://www.bbc.com/news/world-us-canada-52289056>.
- 41) Kinling Lo. "Coronavirus: China donates another US\$30 million to WHO after US funding halt." South China Morning Post. 23 April 2020. <https://www.scmp.com/news/china/diplomacy/article/3081280/coronavirus-china-donates-another-us30-million-who-after-us>.
- 42) WTO. "Trade set to plunge as COVID-19 pandemic upends global economy." 8 April 2020. https://www.wto.org/english/news_e/pres20_e/pr855_e.htm.

❖ 저자 약력

■ 정승철

現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University of Florida에서 정치외교학 박사학위 취득. 관심 분야는 국제정치경제, 동아시아 국제관계, 연구방법론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Effects of Trade Relations on South Korean Views of China", "Economic Interest or Security Concerns? Which affected how individuals in five Asian countries viewed China in 2013?", "Effects of International Trade on East and Southeast Asians' Views of China" 등이 있음

기획 및 감수: 정승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한유진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조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3546)
전화: 064) 735-6500 팩스: 064) 738-652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